

설명절 소상공인 긴급자금 150억원

전북도-전북신용보증
내달 22일까지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지원
비상근무체계 갖추고
보증처리일수 4일로 단축

전북도,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은 설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자금 150억원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 전북신보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설명절 소상공인 특별보증(이하 특별보증)'을 21일부터 한 달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내수 부진으로 경영애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에 집중해 이들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돕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전북도에서 자영업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다.
지난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 달



설 앞두고 상인 가득찬 전주 농수산물센터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앞둔 23일 전주시 농수산물센터에 새벽부터 설 제수 품목을 경매로 구매하기 위해 모인 시민과 상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다.

동안 진행되며,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7,000만원으로 기존 심사기준과 심사절차를 크게 줄여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 달 동안 본·지점 비상근무체계를 갖추고 기존에 7일 정도 걸리던 보증처리일수를 4일로 단축하

여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신보 김용무 이사장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상담받거나 전북신용보증재단(본점 230-3333, 군산지점 452-0341, 익산지점 838-9377, 정읍지점 533-6411, 남원지점 633-761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社告

제5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기간: 2019년 1월 28일(월)~1월 29일(화)

장소: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전주매일신문이 동계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와 유망주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주군 체육회장배 스키·스노보드대회'를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주최: 전주매일신문, 무주군
- ▶ 주관: 전북스키협회
- ▶ 후원: 전북도, 무주스키협회, 무주덕유산리조트
- ▶ 참가자격: 전국 아마추어 남녀 스키, 스노보드인
- ▶ 참가접수 및 기간: 이메일(jjmaeil1@hanmail.net) 또는 팩스(063-288-9703), 1월 25일까지
- ▶ 시상: 1·2·3위 남녀별(스키, 스노보드별)
- ▶ 부상 및 트로피, 기념품 제공
-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

전주매일

매일 INDEX

4면 - '나라슈퍼 검찰 수사 '부적절''

15면 - 한옥 레일바이크 '화제'

전주시가 올해 신생아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23일 열린 신년 브리핑을 통해 '누구나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도시'를 비전으로 한 보건·의료분야의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전략은 △건강생활 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 환경 조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체계 구축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관리 체계구축 △행복한 노년 건강한 삶의 질 향상 △건강안전 환경조성 및 정신건강증진 강화 △의료 공공성을 선도하는 건강한 전주시 만들기 등이다.

건강 환경 조성의 경우, 보건소는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 근로자, 경로당에 대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사업장 근로자에게 찾아

'신생아부터 어르신까지' 보건의료서비스 한층 강화

전주시보건소, 건강환경 조성 등 6대 추진전략 제시
회귀난치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보호체계도 강화

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건강한 일터 만들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회귀난치성질환자와 장애인, 임신부, 미취업 청년 등 건강취약계층의 보호체계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의 경우, 기존 만19~64세 세대주와 만40~64세 세대원, 만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에서 올해부터는 만 19~39세 세대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회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도 기존보다 57개 늘어난 951개로 확대되고 부양의무자구 소득재산조사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여기에, 장애인 재활보조사업 내실화를 위해 1:1 맞춤형 재활운동과 가정 방문 재활서비스를 추진하고, △재활 웃음·일예치교실 △행복노래교실 △평화 해피시네마 등 사회참여사업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재활운동실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치과진료와 정기적 관리서비스도 제공한다.

보건소는 기존 청년건강검진사업도 국가 건강검진사업과의 장점을 결합한 '내몸사랑 2030 청년건강관리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역 청년들이 원하는 검사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연 2회까지 수시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가정에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대상자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20%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되고,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지원은 기존 5대 고위험질환에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자궁경부무력증, 분만전 출혈 및 절박유산 등 11종이 추가돼 입원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43개 동네의원과 함께 고혈압·당뇨환자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에게 치매지원서비스를 제공·연계하는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와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 극복 선도단체 양성,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등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들을 위한 의료공공성도 한층

강화된다. 보건소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 전주시 노인복지위원을 치매전문요양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통해 공립요양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중심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우울증 선별검사 지원과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적응력 향상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올해도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건강증진사업과 각종 의료지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전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제5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1월 28일(월)~29일(화)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 ▶ 주최: 전주매일신문, 무주군
- ▶ 주관: 전북스키협회
- ▶ 후원: 전북도, 무주스키협회, 무주덕유산리조트
- ▶ 참가자격: 전국 아마추어 남녀 스키, 스노보드인
- ▶ 참가접수 및 기간: 이메일(jjmaeil1@hanmail.net) 또는 팩스(063-288-9703), 1월 25일까지
- ▶ 시상: 1·2·3위 남녀별(스키, 스노보드별)
- ▶ 부상 및 트로피, 기념품 제공
-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